

유아 미술교육의 탐구적 접근에 관한 연구
- 존 듀이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quisitive Approach of Early Childhood Art Education
- Focused on Dewey's Theory of Art -

주저자

이 안 근 Lee, An-keun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ni@wu.ac.kr

투고일	2017.12.09	심사일	2018.01.19	게재확정일	2018.01.24
-----	------------	-----	------------	-------	------------

본 연구는 2017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과제임.

www.kci.go.kr

목 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 2.1. 존 듀이의 경험 예술론
- 2.2. 미술활동에 내재된 탐구적 특성
- 2.3 유아 미술교육의 특성
 - 2.3.1. 유아 미술교육의 이해
 - 2.3.2. 유아 미술교육의 탐구적 접근

3. 결론

참고문헌

Keyword

질성적 사고, 탐구, 하나의 경험, 경험의 성장,
유아 미술활동
Qualitative thinking, Inquiry, an Experience,
Growth of experience, Infants' activities of
art.

Abstract

In this study, it is discussed that inquiry activities are fundamentally inherent in early childhood art activities.

For this discussion, I studied art activities based on Dewey's experience concept which claimed the art theory from a new perspective. According to Dewey, Experience is the process by which organisms grow and reconstruct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y transaction with the world. Therefore, the growth of experience itself has inherent value of education. Dewey defined the experience of the complete state of 'an experience' with aesthetic qualities as artistic component. Art activities are activities that basically experience various qualities directly and have qualitative thinking. When an artist designs an artwork, he or she chooses an object to express by thinking based on qualitative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a work, the painter has an overall quality and reflective thinking that grasps the relationship with various relationships in the whole process of creation.

Therefore, the activity of the artist has an inquiry activity that requires both qualitative and reflective thinking. that is, art works through the process of integrated thinking of qualitative and reflective thinking as a complete experience of 'an experience'.

Children in early childhood have a way of understanding the world and acquiring knowledge by directly experiencing various qualities. Thus, early childhood art activities are an excellent means of inquiry by qualitative thinking. It is important to provide an inquiring learning environment for early childhood and the infant undergoes a process of thinking that recognizes and solves problems that arise in the course of art activities. By doing so, the infant expands experience by reasoning and logical thinking.

논문요약

본 연구는 유아 미술교육의 미술활동에 근본적으로 탐구활동이 내재되어 있음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

의를 위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예술론을 주장한 듀이의 경험개념을 기반으로 미술활동을 고찰하였다. 듀이는 경험이란 유기체가 세계와의 능동적이고 활발한 상호 교섭에 의하여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재구성되는 과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경험의 성장은 그 자체로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듀이는 예술론에서 미적 성질을 지닌 '하나의 경험'이라는 완결된 상태의 경험을 예술적 구성논리로 정의한다.

미술활동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질성을 직접 경험하며 질성적 사고를 하는 활동이다. 예술가가 작품을 구성할 때는 질성적 경험에 의한 사고에 의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한다. 그리고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는 총체적인 질성을 갖고 창작활동의 전체의 과정에서 변형하고 응축하며 여러 관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반성적 경험의 사고를 한다. 따라서 예술가의 활동에는 질성적 사고와 반성적 사고 모두를 필요로 하는 탐구활동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즉 예술은 질성적 사고와 반성적 사고의 통합된 사고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경험'을 이루는 완결된 경험으로서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다.

유아기의 아동들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질성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얻는 방식을 갖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 미술교육에 있어서 통합된 사고를 필요로 하는 미술활동을 탐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미술교육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였다. 성장기 유아에게 탐구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이며 미술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사고의 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경험의 확장을 이룬다.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배경

미술은 인류의 긴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 선사시대 이전의 동굴 벽화나 유물에 남아 있는 각종 문양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한다. 이것은 미술이 인간의 삶과 더불어 존재했던 활동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술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 중에는 미술이 단지 사실을 재현하는 것이나 정서적인 기능으로 한정되어 취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원인은 예술을 정의하는 미학의 관점 중 '모방론'과 '표현론'¹⁾에 근거를 두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미술교육에 영향을 미쳐 표현중심 미술교육과 창의성중심 미술교육의 이론적인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현중심 미술교육은 미술품 제작을 위한 표현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미술가를 기르려는 목적과 필요에 의해 학교교육으로 도입되었다. 표현중심 미술교육은 미술의 표현기법이나 기본적인 요소와 구조에 관한 반복적 훈련에 의한 교육이었으며, 학습자의 특성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미술교육은 16세기 이후부터 19세기 말 프란츠 치첵(Franz Cizek, 1865-1946)의 주장을 계기로 창의성중심 미술교육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모든 미술교육의 기본적인 흐름이었다.

창의성중심 미술교육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미술교육의 주된 흐름으로, 표현중심 미술교육에서 간과되었던 자기표현을 강화하여 창의성을 계발하고 정서함양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지향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미술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육은 지적 사고가 요구되지 않는 과도한 감정 표현만을 강조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미술교육의 흐름에서 미술에 대한 관점이 학문적인 차원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다. 미술교육의 학문적인 차원이란 미술교육을 과학적인 탐구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연구하여 미술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미술활동을 문제해결 및 탐구과정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미술을 탐구영역에서 인지적 관점으로 논의를 이끌었던 학자는 듀이(J. Dewey)와 랭거(S. Langer), 아이스너(E. Eisner), 굿맨(Nelson Goodman), 아른하임(R. Arnheim)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듀이는 『경험으로서 예술

1) 미학에서 예술을 정의하는 세 가지 관점은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이다. 모방론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18세기 신고전주의에 이르기까지 약 2300년 동안 미술작품에 대한 관점이었다. 모방론은 18세기 예술이 현실을 재현하는 수단이거나 현실의 대체물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자율적인 실체라는 관념으로 도전을 받았다. 표현론은 예술가의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로 다른 미적 가치를 갖는다. 형식론은 미술작품 안의 색, 형태, 명암, 양감, 질감 등과 같은 구성요소들로 작품 외적인 것보다 작품 자체를 주목하는 것이다.

(*Art of Experience*)』에서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해 가며 겪는 사고(thought)의 과정이 과학자의 탐구적 문제해결로서의 사고 과정과 같은 것으로, 예술도 과학과 같은 인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만 예술가는 그가 다루는 질적 특성을 가진 대상들을 직접 가지고 사고하며 그 내용을 곧바로 대상에 통합시키는데 반하여, 과학자는 비교적 대상과는 떨어진 상징과 언어, 수학적 기호 등을 사용하여 사고²⁾한다는 것이다. 듀이의 이러한 과학적 탐구와 예술표현의 동일시 관점은 미술활동을 ‘탐구’의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르하임은 미술활동에서 ‘지각 자체가 인지활동’ 즉 미술활동이 시지각을 통한 시각적 사고에 의한 인지활동임을 주장하였다.³⁾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활동은 인간의 통합적 인식능력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창작되는 작품 또한 통합된 지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미술 또한 인지적인 탐구과정을 통한 사고를 기호로써 표현하는 것과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미술활동의 본질적인 특성은 눈과 손으로 지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며, 머리로 생각하는 표현활동이다. 이것은 미술활동이 통합적인 사고의 과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2015 개정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예술경험 영역의 교육목표는 미적 경험과 창의적 표현능력을 기른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써 현실교육의 실제적인 측면을 보면,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활동은 탐구영역과는 거리를 두고 정서와 자기표현에 중점을 두는 활동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물론 통합교과적인 측면에서 몰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미술활동은 성장단계에 따른 탐구적 접근으로서 실천적 교육과정으로 본다. 아쉬운 점은 누리과정 세부 교육내용에서 탐구적 접근 항목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술은 다른 교과영역과는 달리 미술활동의 특성상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재료를 이용하여 지각활동에 의한 앎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아미술의 표현활동이

통합적인 지각에 의해 이루어지는 탐구활동이라는 점을 듀이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로써 유아 미술활동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미술의 본질적 이해추구와 이후 유아 미술교육의 방향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유아 미술교육의 미술활동에 내재된 탐구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 이론적 근거로 듀이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탐구적 관점에 의한 미술활동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면, 첫째로 듀이의 예술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경험으로서 예술』을 중심으로 관련된 저서와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고찰한다. 둘째, 미술활동에 내재된 탐구적 성격에 대해 듀이의 예술론에서 예술적 사고의 과정과 단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지각적 사고의 산물로서 미술을 파악하는 아르하임의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를 중심으로 감각체계가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유아 미술교육에 대한 이해로 주요 이론을 살펴보고, 예술론에 의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탐구적 접근에 의한 유아 미술교육의 정당성과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탐구적 접근의 간단한 예(例)와 필요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유아 미술교육에서 미술활동이 인지 탐구적 관점으로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다만 본 연구에서 탐구적 접근에 의한 미술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에 따른 교수내용과 교육목표에는 유아 미술활동이 체험학습과 정서적 학습 위주로 실시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많은 유아프로그램들은 주로 누리과정과 발달적 적합성의 기준에 맞춰 구성된 흥미영역에서 운영되고⁴⁾ 있는 것에 대해 균형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논하기 위하여 인지 탐구적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2) 박철홍. (2017) *경험으로서 예술* 1. p.42

3) 김정오. (2004) *시각적 사고*. pp.31- 36 정리.

4) 안경숙. 신애선. (2017) *뇌 기반 학습원리를 적용한 유아디자인교육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p.45

2. 이론적 고찰

2.1 존 듀이의 경험 예술론

듀이의 예술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경험’이며, 그의 예술론은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경험으로서의 예술론, 곧 경험 예술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듀이의 경험론은 이분법적인 전통적 경험론⁵⁾이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론을 주장하면서 예술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듀이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에 대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듀이의 경험이론 사상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집필되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적 영역에 관련하여 경험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듀이는 경험의 유기체적 특성에 주목하여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삶 자체를 경험으로 정의하며, 경험이란 인간이 사회, 문화적 환경과의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즉 세계와의 능동적이고 활발한 상호교섭(transaction)⁶⁾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이 미적인 성질을 갖는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험은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의 특수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능동적 측면에서 경험은 해보는 것(trying)을 말한다. ... 그리고 수동적 측면에서 경험은 겪는 것(undergoing)을 말한다.”⁷⁾ 이에 대한 예시로, 듀이는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한 아이가 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 자체는 경험이 아

니고 그 동작의 결과로서 아이가 당하는 고통과 연결될 때 경험이 성립된다고 한다. 여기서 아이의 행위는 외부환경인 능동적인 요소이며, 고통은 대상으로부터 가해지는 수동적인 요소이다. 이것은 곧 “무엇을 행하고(doing) 겪는(undergoing)것의 연결을 지각하는 것으로서 경험은 하나의 과정”⁸⁾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행동하고 영향 받는 방식, 행하고 당하며, 생각하는 방식 등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삶은 경험의 연속이며, 경험은 주기적인 변화의 연속성으로 발전하며 안정과 균형상태를 유지해 나간다. 이것이 경험을 이루는 환경과의 연속성(succession)의 원리와 상호작용(interaction)의 원리로써 경험이론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된다. 연속성의 원리란 선행된 경험으로부터 무엇이든 얻게 되고, 이것은 후속되는 경험의 질을 확장 변화시키게 되는 원리이다. 따라서 연속성의 원리와 상호작용이 두 원리는 경험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growth)하고 재구성(reconstruction)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바로 교육의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¹⁰⁾

듀이는 『경험으로서 예술』에서 예술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위해 그 특유의 경험 개념으로부터 미적 성질을 지닌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을 예술로 완결 짓는 형식을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경험’으로 발전되어 예술적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경험된 사물들이 모두 ‘하나의 경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경험’은 이상적인 경험으로서 경험에 작용하는 모든 부분과 구성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통합된 완결상태에 이르게 된 경험, 즉 바람직한 경험의 조건을 갖춘 완결된 경험(consummatory experience)을 의미한다.¹¹⁾ 경험에서 완결이라는 것은 질성(quality)에 의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며, 어떠한 경험이라도 완성된 경험이라면 그 안에는 지적이며 미적 경험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듀이

5) 듀이는 "An Empirical Survey of Empiricism"(1935)는 문에서 경험의 의미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Platon, Aristoteles를 중심으로 한 고대 희랍시대의 경험관, Locke, Berkely, Hume을 대표하는 근세의 영국 경험론, James에게서 제기되어 19,20세기에 발전되어온 새로운 경험이론이라고 하였다.(재인용, 송도선.(2013). 존 듀이의 경험교육론.PP.49,50.

6) 상호작용(interaction)과 상호교섭(transaction)의 구분에 대해 듀이는 상호작용에서의 활동이 불변의 실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상호교섭은 구성요소들 자체가 변화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특징으로 주체와 객체사이의 유기적 상호작용이라 불리던 것이 후기에는 상호교섭으로 사용되었다.(이경후(1994). 존 듀이의 심미적 경험과 예술교육. p.107, 재인용).

7) Dewey.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p.163.

8) Dewey.(1916) *Democracy and Education*. p.195.

9) Dewey.(1925) *Experience and nature*. p. 18.

10) John Dewey.(1934) *Art as Experience*. p.36-40 정리

11) 박철홍.(2017) *경험으로서 예술 I*, p.88.

는 “어떠한 미숙한(rudimentary) 경험일지라도 완성된 경험 안에는 심미적 탐구라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미적 경험”¹²⁾ 이라고 한다. 듀이가 말하는 미적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험을 하는 것(having an experience)’, 즉 일상적 경험이 ‘예술적인 것’과 ‘미적인 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통합을 이루고 성장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의미가 집중된 수렴적 완성(consumation), 곧 ‘하나의 경험’으로 조직화된 경험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듀이의 완결된 경험을 의미하는 ‘하나의 경험’에 이르는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의 경험’은 경험을 구성하는 재료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연속성으로 이어져 다음 단계로 흘러들어 가며 통합적인 의미의 축적을 지닌 총체가 된다. 즉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경험들은 진행되는 과정마다 새로운 특성을 축적하며 동시에 전체를 이루면서 계속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경험의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경험의 암시적 측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적 경험의 사고과정인 ‘질성적 사고(qualitative thinking)’를 통한 앎의 방법이다.

질성적 사고란 이성적 사고와 구분되는 것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건 또는 상황에 대면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인간의 능력이다. 듀이는 이 질성(感)의 반응이 비록 순간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본다. 그리고 이 질성을 가리켜 변화하며 발전하는 ‘의미 있는 정서’라고 한다. 정서는 경험의 부분들을 단일한 총체로 묶어주는 질성을 작용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서는 경험에 편재하는 질적 특성으로써 “경험을 변화시키고 응결하는 힘을 가진다.”¹³⁾

듀이는 경험의 총체적 특성과 질성적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예술이라고 한다. 예술은 불안정한 상태의 일상적인 경험이 창작행위와 관계된 ‘예술적인 것’과 인식과 향유와

관계되는 ‘미적인 것’이 발전하고 성장하여 ‘하나의 경험’이라는 완결된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 의한 창작 활동이다. 예술 활동이 완결된 상태의 ‘하나의 경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성적 사고와 질성적 사고의 작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화가는 작품을 구상하고 작품의 여러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성적 사고를 하면서 질성적 전체에 관련하여 사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다면 개념상 질성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로 구분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통합된 질성적 사고이다. 따라서 예술가는 창작활동을 하는 동안 ‘통합된 질성적 사고’를 하게 된다.¹⁴⁾

경험과 관련하여 사고의 단계를 살펴보면, 경험은 인식의 과정인, 즉 일차적 경험인 ‘질성적 경험’의 단계에서 시작하여 ‘반성적 경험’(Reflective Experience)의 단계를 거쳐 다시 ‘질성적 단계’로 돌아오는 과정이다.¹⁵⁾ 이 과정에서 처음 단계의 질성적 경험과 반성적 경험의 단계를 거친 마지막 단계의 질성적 경험에서 느끼는 의미는 다르며 더 가치 있고 확장된 사고를 수반하게 된다. 이것은 사고의 단계적 방법을 구분된 개념으로 서술한 것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질성적 사고와 반성적 사고는 사고의 경험 속에서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험의 양태로 볼 수 있다. 즉 일차적 경험의 양태는 질성적 사고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반성적 경험의 양태는 지적 사고가 지배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다.”¹⁶⁾

2.2 미술활동에 내재된 탐구적¹⁷⁾ 특성

미술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경험하는 한 유형이며, 화가는 작품을 창작할 때 작품 전체와 관련하여 능동적인 행위와 수동적인 행위 각각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사고의 과정을 겪는다. 이것은 예술가가 작품 전체의 질성에 비추어 순간순간 행하는 활동의

12) John Dewey.(1934) *Art as Experience*. p.19.

13) John Dewey.(1934) *Art as Experience*. p.44.

14) 박철홍.(2011) 듀이의 경험 개념에 비추어 본 사고의 성격. p.94.

15) 옥영희.(2013) 아동미술활동에 내재된 탐구활동의 통합적 사고작용에 관한 연구, p.326.

16) 박철홍.(2011) 듀이의 경험 개념에 비추어 본 사고의 성격. p.92.

17) 듀이에게 ‘탐구’는 ‘사고’의 정의와 동일하다. ‘탐구의 논리’는 통상 ‘반성적 사고’와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김연희.(2012) p.86)

의미에 대하여 과학자 못지않게 치밀하게 사고해야 만큼, 과학자와 예술가는 모두 지력이 관계되는 탐구활동을 한다.¹⁸⁾

이처럼 듀이는 예술론 여러 부분에서 예술과 과학의 동등성을 주장한다. 다만 과학자와 예술가는 탐구를 수행하는 관심과 목적에 따라 다른 탐구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즉 예술가는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리는 선과 색채 그리고 형태 등 여러 요소들과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의 형상과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 감상하고 향유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간다. 이 때 완성된 그림을 그리기까지의 단계는 반성적 경험의 단계이며, 여기에 사용되는 사고는 이성적 사고에 해당한다.¹⁹⁾ 이에 비해 과학자는 주로 지적인 경험과 연관되는 지적 발견의 사고를 하지만 그 탐구과정 안에는 정서적인 미적 성질을 지닌 경험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과학자도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의 기쁨을 느끼는 하나의 경험인 미적 경험을 갖게 된다. 다만 그 경험의 미적 성질이 과학자에게는 지적 목적에 더 크게 작용하여 인지활동 측면이 강하고, 반면에 예술가는 예술매체의 질적 성질들의 관계를 통해서 질적인 사유를 하기 때문에 인지 활동보다는 지각활동이 강하다. 이에 대해 듀이는 그렇다고 “예술을 통한 질적 사유가 결코 과학자의 사유보다 열등한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예술과 지성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예술가는 과학자만큼이나 엄격하게 사고”²⁰⁾한다고 기술한다.

미술사를 보면 과학적인 탐구와 사고에 의한 위대한 예술품의 예는 매우 많다.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의 <인체 비례도, Canon of Proportions> 는 인체를 기하학적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표현하였으며, 19세기 말에 등장한 인상주의의 점묘화법은 인간의 시각이 빛을 수용하고 인지하는 원리에 의한 다양한 색의 작은 점을 병치시켜 시각적 혼색을 만드는 기법이었다. 또 고대 그리스 건축물과 많은 조각품에서는 수학적 사고에 의한 황금비,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작품에서

18) 박철홍.(2017) 경험으로서 예술 I, p.107.

19) 박철홍.(2011) 듀이의 경험 개념에 비추어 본 사고의 성격. p.94.

20) 김연희.(2007) 존 듀이의 경험적 프라그마티즘 미학의 예술교육적 함의.p.98.

는 기하학에 기초하여 사물의 관계를 추정하는 원근법 등 인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색과 형태를 통한 미의 탐구, 재료와 기법의 탐구 등 미적인 탐구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듀이는 미적 성질을 지닌 하나의 경험인 완결된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이성적 사고와 질성적 사고의 작용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완결된 경험에서 예술의 미적 성질에 내재하는 정서는 작품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는지와 어느 정도의 강약과 색조와 음영을 넣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전체적인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구성하는 부분들을 다루어야 하는 결정의 척도가 된다.²¹⁾ 예술가가 이러한 작품 구성의 관계들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은 숙고에 의한 사고를 통해서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능동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수동적으로 행해지는 것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지성(intelligence)의 일”²²⁾이며, 이것은 예술가가 자신의 작업 과정 속에서 능동적인 예술적 활동과 수동적인 지각활동인 미적 경험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예술가가 이처럼 지성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곧 사유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예술가는 과학자의 실험과 비견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다.

미술활동에 내재된 탐구적 특성을 정리하자면, 예술적인 활동은 기본적으로 질성을 다루는 것이다. 예술가는 작품에 대한 구상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일차적 질성을 질성적 경험에 의한 사고에 의해 대상을 선택한다. 그리고 창작활동을 하면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총체적인 질성을 갖고 표현을 위한 구성요소를 결정하고 배열하는 활동의 전체의 과정에서 예술가는 사고를 해야 한다. 또한 예술가는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그려진 것과 그리고 있는 것 그리고 그려야 할 것과의 관계, 즉 반성적 경험의 사고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예술가의 미술활동에는 질성적 경험의 사고와 반성적 경험의 사고를 필요로 하는 탐

21) 박철홍.(2017) 경험으로서 예술 I, p.157.

22) Dewey.(1916) *Democracy and Education*. p.180.

구 활동이 내재하고 있다.

2.3 유아 미술교육의 특성

2.3.1. 유아 미술교육의 이해

최근 들어 미술교육이 단지 정서적인 역할 외에 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미술의 본질적 가치가 교육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주제와 관련하여 유아 미술교육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이론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1960년대 이래 미술교육에 대한 인지적 접근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했던 이론가들은 피아제(J. Piaget)와 비고츠키(L. S. Vygotsky), 브루너(J. S. Bruner)같은 구성주의 심리학자들과 넬슨 굿맨(Nelson Goodman)의 기호체계이론과 구성주의 인식론, 그리고 굿맨을 이어받아 다중지능이론을 주장한 가드너(H. Gardner) 등이다. 이 이론들은 미술교육의 담론과 실제에서 ‘학문기초 미술교육(DBAE: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를 넘어서면서 DBAE의 ‘학문중심’에서 ‘미술 창작의 사유기능’에 주목하면서 아이스너(E. W. Eisner)와 맥락을 같이하는 설리반(H. S. Sullivan) 등은 ‘예술기반연구’를 주장하였다.²³⁾ 이들이 주장하는 예술기반연구는 이해중심 미술교육에서 더 나아가 미술이 탐구의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며 미술의 가치를 주장하였다. 이해중심 미술교육은 듀이의 경험예술론과 관련하여 과학적 탐구이론의 인지적 접근 방식에서 새로운 미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인지론을 주장한 아이스너는 미술을 인지적 영역으로 이해하고 미술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논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유아 미술교육에 대한 아이스너의 견해는 유전적 요인보다는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술표현은 자연적인 성숙의 결과이기 보다는 학습을 통한 결과라는 전제에서 학습에 비중을 두었다. 또한 아이스너는 미술 수업의 영역에 미술표현, 미술비평, 미학, 미술사를 미술교육에서

23) 김연희.(2007) 존 듀이의 질적사유와 예술교육. pp.1-17 정리.

가르쳐야 할 학습의 중요한 영역으로 보았다.

로웬펠드(Lowenfeld)는 현대 미술교육에 이론적 바탕을 이루며 유아 미술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미술과 미술교육을 구분하여 미술은 제작 결과에 관심을 두는 반면 미술교육은 제작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유아에게 잠재되어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계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유아 개인의 개별적인 발달단계와 발달수준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아의 사고와 지각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로웬펠드는 아동발달을 6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그에 맞는 동기 부여와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로웬펠드는 미술과 과학의 진보는 주로 창의적 정신의 결과라는 전제를 통한 연구를 함으로써 창의성 이론에 견고한 방향을 제공하였다.

브루너는 미술교과에 대한 ‘지식의 구조’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지식을 통하여 현상을 바라보는 틀을 체계화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브루너는 미적 대상의 파악에 있어서 지식의 구조를 3 단계로 파악하였다. 즉, 인지 및 지각단계, 해독(解讀)단계, 판단 및 평가 단계로 구분하였다. 브루너는 만약 이러한 단계가 없다면 미술에 있어서 미적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교수방법도 없다고 보았다.²⁴⁾ 그는 교사의 지도와 교육과정을 강조하며 미술교과의 학문적 체계화를 이루었다.

이 밖에도 유아 미술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 프뢰벨(Frobel), 슈타이너(Steiner)의 발도르프교육, 몬테소리(Montessori), 피아제(Piaget) 등 대표적인 많은 학자들의 이론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2.3.2. 유아 미술교육의 탐구적 접근

유아의 미술교육에 있어서 미술활동은 신체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직접적 경험 즉 체험에 의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유아들이 미술활동에 흥미를 갖는 것은 직접 재료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미적경험을 할 수 있기 때

24) 송인식.(1994)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를 통해서 본 미술교과. pp. 34-36.

문이다. 또한 유아기 아동들의 호기심은 미술 활동의 체험활동에서 경험하는 물체와 물질 등의 특성이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선호하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교육에서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유아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가장 용이한 수단이 된다. 또한 유아들은 탐색과 관찰을 통한 통합적 활동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에 비해 미술은 유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도구적 역할을 한다.

유아들이 ‘하나의 경험’으로써 미적 경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요소나 유아의 자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경험에 내재되어 있는 미적인 성질이 즐거운 경험으로 강화되고 명료화되는 것이다. 이로써 유아들은 즐거운 체험의 경험을 매개로 표현활동을 한다. 따라서 유아들이 미적 경험을 한다는 것은 교육적 관심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써 가치가 크다.

유아들이 미적 경험으로써 하나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모든 질성이 감각이나 판단, 상상 등이 통합된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의 교육은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감각을 통한 체험은 사고와 결합하고, 상상하는 것은 실제와 연결되며 한 영역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다른 영역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유아들은 과학적 탐색으로부터 독창적인 미술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미술과 언어, 그리고 사회 학습 영역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기르게 된다.²⁵⁾

문제해결의 과정에 이르는 “듀이의 ‘사고의 5단계’²⁶⁾로 알려진 내용을 요약해 보면, ① 문제의 인식 ②잠정적 가설의 형성 ③현사태의

조사 ④가설의 정련 ⑤가설의 검증”²⁷⁾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이후 듀이는 사고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 다르게 표현하여 제시하지만, 문제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제시된 단계에 따라 해결책을 탐구하고 추론하는 전체의 과정은 같다.

유아들은 미술활동을 하면서 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사고의 단계를 경험한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탐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행함과 겪음을 통한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을 이루는 하나의 완결된 경험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듀이가 이러한 “미술활동의 사고 과정이 과학 탐구의 과정과 동일”²⁸⁾한 관점으로 보는 견해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미술교육의 실재를 예로 들면, 만들기 시간에 ‘야구르트병 목걸이 만들기’를 주제로 한다. 그리고 유아들에게 야구르트 병에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각자 색을 칠하게 한다. 그런 다음 교사가 끓는 물에 야구르트병을 넣으면 모양이 뒤틀리면서 작아지는 물질의 변화를 보여주게 된다. 이것은 과학적인 탐색으로써 물체의 특성과 물질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유아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이 된다. 또 다른 미술교육의 예로 ‘물로 그림 그리기’ 주제를 정한다면 유아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다. 그리고 도화지에 물을 묻힌 손이나 특정 모양을 찍은 후 교사가 빠르게 모래를 뿌리면 모양이 선명해진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물의 용도나 물질의 특성에서 확장된 사고를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술교육이 된다.

미술교육의 탐구 인지적 관점에서 시지각에 대한 이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술활동은 대상이나 현상을 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게젤(Gesell)이나 게투만(Getman)같은 학자는 인간 학습의 약 80%는 시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²⁹⁾ 아른하임에 따르면 ‘본다’는 것은 대상 자체만이 아닌 관계적인 맥락에서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다.

25) 옥영희.(2009) 듀이의 미적 경험론에서 본 유아 미술 활동의 탐구적 성격. p.114.

26) 후에 「사고하는 방법」에서는 ①가능한 해결책의 지시 ②문제의 분석과 파악 ③가설의 확정 ④가설의 추론 ⑤가설의 확인과 검증의 단계를 제시하였다.(*How we think*:106-115). 이러한 사고의 과정은 「논리학: 탐구 이론」에서는 탐구(inquiry)로 전환되면서 ①미결정적 상황 ②문제의 구성 ③문제해결의 결정 ④가설의 정련 ⑤탐구의 종결 단계로 구분하였다.(*Logic: The theory of inquiry*; 105-114)-옥영희(2013). pp.331-332-

27)이홍우.(2016) 민주주의와 교육. p. 244.

28)박철홍.(2017) 경험으로서 예술 I, p.

29)백종열, 오현숙.(2012) 교사를 위한 아동미술교육의 이해. p.15.

다시 말하면, 보는 행위는 감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각적인 것이다. 시지각의 개념에 대해서 감각과 사고를 분리했던 기존의 개념을 확장된 개념으로 확립시킨 아른하임의 인지론은 시지각 활동이 사물의 본질을 발견하고 탐구하고 이해하는 한 형태로써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인지의 방식을 구축하였다.

시각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보면서 인식하고 그 의미를 사고하고 경험을 확장하는 과정까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과정이나 느낌과 경험을 표현활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미술교육은 인지 탐구학습의 표현적 수단으로 매우 적합하다.

유아들의 표현활동 과정은 인지적인 기능이 요구되는데, 유아들의 인지능력은 그들이 이미 획득한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 능력은 유아들의 생물학적 발달단계에 따른 요인과 활동하는 상황과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며 학습한 결과이다. 특히 유아들은 새로운 것을 관찰하고 탐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호기심을 갖고 감각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사물을 탐색함으로써 세계를 경험한다. 이러한 감각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감지되는 질성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앎을 형성한다.

유아들은 미술활동에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형식을 인지하게 되고, 재료의 다양한 활용 경험은 발상의 전환과 경험의 확장을 가져오는 심미적 경험을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미술교육 실재에서 ‘폴물감 만들기’를 주제로 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하도록 한다. 이 수업은 색의 혼합과 질감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것은 사물의 성격을 밝히는 것으로써 단순한 폴과 물감의 변화는 유아들에게 물질에 대한 사고의 확장을 이루는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미술교육은 유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유용한 매체로써 의사소통의 도구가 된다. 왜냐하면 유아들은 자신의 그림과 다른 사람의 그림을 비교하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것은 예술의 감상과 비평에 해당한다. 감상과 비평은 이제까지 축적된 경험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경험에 의한 사고로 새로운 하나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듀이는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한

다는 것은 미적 성질에 대한 판단이자 심미적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평이란 작품을 보고 자신이 느끼는 질적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질적 탐구”³⁰⁾라고 한다.

지금까지 유아 미술교육에 내재하는 탐구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탐구적 접근에 의한 교육의 실재를 몇 가지 예로 들었다.

미술교육에 있어서 특히 유아 미술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신체적인 발달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인간의 뇌에서 미술적 경험을 다루는 전문화된 부위인 대뇌피질의 시각피질이 유아기에 집중적으로 발달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위가 시각적 정보처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술의 근본적인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둘째, 유아기는 창의성과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로 미술교육이 창의성을 증진시키며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³¹⁾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유아기는 호기심이 왕성하며 감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탐구적 접근의 미술교육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유아 미술교육의 주요한 기여는 유아들의 통합적 지각 활동을 통해 사유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있다. 연구결과 유아 미술활동 전체의 과정은 사고력을 요하는 탐구활동임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아들이 작품을 구상하고 그에 따른 재료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작품을 하는 동안 끊임없는 사고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경험하며 작품을 변형하고 재구성, 재배열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활동은 질성적 경험의 사고와 반성적 경험의 사고를 필요로 하는 탐구 활동의 과정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유아 미술교육의 미술활동에 내재된 탐구적 특성을 논의함으로써 유아 미술교육이 탐구적인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하

30) 옥영희. (2008) Dewey, 1934;298 . 재인용 p.152.

31) 안경숙, 신애선. (2017) 뇌 기반 학습원리를 적용한 유아디자인교육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p. 46-47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를 위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예술론을 주장한 듀이의 경험이론을 중점으로 미술활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듀이의 경험론에서 경험의 성장은 연속성과 상호작용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속성이라 함은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 이끌어지는 교육의 특성과 맥을 같이 하며, 경험의 주체인 유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경험의 성장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의 성장은 곧 교육이며, “교육은 경험의 끊임없는 재조직 또는 재구성”³²⁾이라는 듀이의 말은 경험의 연속성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듀이의 경험예술론의 견해를 중심으로 유아 미술교육의 미술활동에 내재된 탐구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첫째, 미술교육은 직접적인 경험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미술활동 과정에서 직접 체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탐구적 활동이다. 유아들 스스로 재료와 구성, 배열, 조화에 따른 선택활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반성적 사고의 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합리적, 논리적인 사고력이 계발된다.

둘째, 미술교육은 유아들이 몸을 통하여 다양한 질성을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활동을 통하여 즉각적인 질성적 사고를 하게 한다. 질성적 사고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은 기본적으로 대면하는 대상에 대한 질성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미술활동에서 대상에 대한 시각적 탐구와 사고의 인지 방식은 사물의 본질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형태이며, 이러한 감각체계에 의한 질성적 사고는 미술활동에 의해 자극되며 확장된 감성 발달로 이어진다.

셋째, 미술교육에서 관찰과 탐구에 의한 미적경험이 표현활동으로 완결된 경험은 ‘하나

의 경험’으로써 성장을 경험한다. 듀이에 따르면 경험은 교육의 연속적인 재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이 스스로 경험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유아교육의 바람직한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학습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자극과 힘이 된다.

넷째, ‘하나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미적 경험을 하는 것이다. 미술활동을 하는 것은 주변을 탐색하여 미적 요소를 찾는 미적인 감각을 발달시키며, 미적 경험을 향유할 수 있는 지각과 정서를 구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환경과 주변세계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방식이 된다.

이러한 탐구적 특성을 가진 유아 미술교육을 오로지 정서적 측면에서만 실시하거나 다른 교과와 보조학습 또는 놀이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유아들에게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유아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아의 인지적 잠재력을 계발 시키는 데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은 질성적 사고와 반성적 사고의 통합된 사고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경험’을 이루는 완결된 경험으로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과정은 유아들에게 인지능력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듀이의 통합이론의 정점에는 예술이 있다. 예술은 지각 속에서 통합된 경험의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예술과 동의어인 통합된 지각으로서의 미적 경험은 일상적 경험의 성장 혹은 수렴적 완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이다.”³³⁾ 유아에게 탐구적인 경험으로서 성장은 중요한 의미이며, 신체발달에 따라 직접 체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앎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시각적 재료와 체험학습의 경험이론은 중요한 연계로써 미술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유아 미술교육에서 탐구적 접근으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아동들은 미술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사고의 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계발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와 관련한 제언으로 후속 연구에서 듀

32)Dewey.(1916) *Democracy and Education*. p.89.

33)김연희. (2007) 존 듀이의 경험적 프라그마티즘 미학의 예술 교육적 함의. p.79

이 ‘사고의 5단계’를 적용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탐구적 접근으로서 유아 미술교육에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중 하나로 본다.

참고문헌

- 김기수. (2015). 음악의 지각과 의미형성의 과정; 존 듀이 예술철학에 기초하여. *예술교육연구* 13권 2호, 1-19.
- 김연희. (2007). 존 듀이의 경험적 프라그마티즘 미학의 예술 교육적 함의, *조형교육* Vol. 20. 69-112.
- _____. (2007). 존 듀이의 질적 사유와 예술교육; 예술교육과 지식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위하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2). 존 듀이의 교육미학, 경기; 교육과학사.
- 박연숙. (2006). 듀이의 경험 미학과 예술 교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 (2015). 존 듀이의 미적 경험에 토대한 예술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천환. (2012). 듀이의 경험이론과 교육인식론. 서울; 학지사.
- 박철홍. (1995). 듀이의 “하나의 경험”에 비추어 본 교육적 경험의 성격; 수단으로서의 지식과 내재적 가치의 의미, *교육철학* (13-0), 81-109.
- _____. (2011). 듀이의 경험개념에 비추어 본 사고의 성격: 이성적 사고와 질성적 사고의 통합적 작용. *교육철학연구* (33-1), 79-104.
- 백중열, 오현숙. (2013). 교사를 위한 아동 미술교육의 이해. 경기; 공동체.
- 송도선. (2013). 존 듀이의 경험교육론, 서울; 문음사.
- 송인식. (1994).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를 통해서 본 미술교과.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 신경애. (2016). Eisner의 인식론에 기반한 미술교육의 미학적 탐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 안경숙, 신애선. (2017). 뇌 기반 학습원리를 적용한 유아디자인교육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7-2). 45-73.
- 옥영희. (2008). 표현활동과 탐구활동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질적연구; 인지 중심 유아미술활동의 현상학적 접근. *조형교육* (32), 275- 305.
- _____. (2009). 듀이의 미적 경험론에서 본 유아 미술활동의 탐구적 성격.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3). 아동미술에 내재된 탐구활동의 통합적 사고작용에 관한 연구: 듀이 예술론의 질성적 사고를 중심으로. *조형교육* (48). 321-353.
- 유영옥. (2008). 유아교사의 미술수업에 나타난 실천적 지식에 대한 탐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후. (1993). 듀이의 예술론과 예술교육,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4). 존 듀이의 심미적 경험과 예술교육.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12-1). 103-125.
- 지성애, 박찬옥, 유구종, 조형숙. (2010). 우리나라 유아 미술교육 현황과 실태분석. *유아교육학논집* (6). 5-34.
- 정순복. (1990). 존 듀이(John Dewey)의 철학에 있어서 ‘질성(Qualitiveness)’과 예술의 문제, *미학* 15권 1호, 113-148.
- _____. (2005). 존 듀이의 예술철학: 형성과정, 방법론적 토대 및 예술의 본질. *미학* (44). 93-114.
- 천정미, 오은혜. (2005). Dewey의 미적 경험미 예술교육에 주는 시사, *교육사상연구* 제 16집. 99-115.
- 최윤재. (1993). 로웬펠드와 아이스너의 미술교육 사상 및 방법론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임. (2013). 존 듀이의 경험주의 미학에 입각한 예술교육.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竹内敏雄. (1993) 미학-예술사전, 안영길 외, 미진사.
- Arnheim, R. (1969). Visual thinking.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김정오 역 (2004). 시각적 사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_____. (1954). Art and visual perception. 김춘일 역(1995). 미술과 시지각. 서울; 미진사.
- Eisner, E. W. (1994). Cognition and curriculum reconsider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박승배 옮김(2016). 인지와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사.
- John Dewey. (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Perigee. 박철홍 옮김 (2017). 경험으로서 예술 I & II, 경기과주; 나남출판사.
- _____. (1938). Experience & education. New York; Collier Books. 강운중 옮김 (1995). 경험과 교육, 서울; 배영사.
 - _____. (1910). How we think, Boston; D. C. Heath and Company. 정희욱 옮김 (2011). 하우 위 싱크; 과학적 사고의 방법과 교육, 서울; 학이시습.
- _____.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ian Company. 이홍후 번역, 주석(2016). 민주주의와 교육, 경기; 교육과학사.
- _____. (1925). Experience and natur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 _____. (1894-1904). John Dewey as educator; His design for work in education. Arthur G. Wirth. (1966). New York; John Willy & Sons, Inc.

